

“안보·한반도 평화 위해 한·미 공조와 협력 필요”

장신대 평화통일신학포럼서 윤영관 교수 강연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핵 위기’

북핵·미사일로 말미암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해법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장신대에서 열린 평화통일신학포럼에서 윤영관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부장관)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핵 위기”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등 내외적인 춤출한 외교안보 등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튼튼한 공조 체계를 확립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위기 상황의 본질과 도전 과제는? 윤영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국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기에 속내로는 한미동맹에 대한 애착이 이전 미국 대통령들보다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이익을 강대국 간의 거래 사이에서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Kissinger) 전국무 장관이나 앤리슨(Graham Allison) 교수 등이 주장하는 미중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대해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 놓고 한국의 이익과 안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했고,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ICBM을 실전 배치되기 이전, 즉 1년 이내에 대급하게 대북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것”이라 밝힌 후, “그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타결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북한 소유 핵탄두는 계속 보유하도록 인정해줘야.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목표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했다.

그는 이것이 “한반도에서 고조된 긴장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는 했지만, “북한을 실질적인 해보 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북한이 심도 깊은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나아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의 주가적인 도발에 노출되어 버리는, 즉 핵을 소유한 북한의 포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를 공격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을 응징해주겠다는 확장의 약속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윤 교수는 “더 이상 미국의 확장억제를 믿지 못한다면, 고급 전략자산의 상시적 배치”, 전술핵 배치, 자체적인 핵개발 등의 대응책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기가 급히 다가온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또는 북한 보유 핵을 점령적으로 인정해주는 조건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

를 감수할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말해 제2의 애치슨 리인이 그어질 것인가 아닌가가 판명되는 결정적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윤영관 교수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주고받는 식의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 공급 중단, 더 강력한 무역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 봤다. 때문에 그는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미중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여 북한과 포괄적 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면서 “최대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되 동시에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핵화 하는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국내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한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미중 타협,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연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적극적 대가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포괄적인 협상을 만들어 이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 역할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긴밀한 협력과 논의”라 지적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 시켜야 되고, 정상 간의 화학적 친밀도도 높여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미 외교의 총력전을 펼쳐 미국 정부 내외의 모든 수준에서 맨투맨 방식으로 대미집족을 강화하고 춤출한 네트워크를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때 미국에게 정확하게 한국의 입장은 전달하고, 미국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여 모든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나 안보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 주장한 윤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간 거래의 종속변수가 되는,

이른바 코리아파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초비상 시기로, 이때에 맞는 내부적 대응 자세와 외교 전술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외교안보·남북관계·정보·당

당 부처들 간에 메시지, 정책,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검토되고 조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핵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3회를 맞이한 평화통일신학포럼에서는 윤 교수의 발표 외에도 윤덕룡 박사(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와 김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각각

“경제로 본 북한 핵 문제” “북한의 아태지역 내 핵미사일의 도발과 한미일의 대응” 등의 발표를 했다. 행사는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소장 고재길)가 주최했다.

총운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반대했지
만...”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58)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가 진행 되기 전인 국회의정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강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은 ‘동성애동 성훈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주관했다.

박용국 기자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물질주의 불만 가질 것”

한국 순교자의 소리 본부서 한국교회 역사가 케네스 웰스 박사 독서강연회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교회 역사는 어떠할까? 과거 한국교회 ‘자기개조 민족주의’를 정의한 푸른눈의 역사가가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저서의 새 번역본의 일부를 독서강연회에서 읽고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교회 역사가인 케네스 웰스 박사(캔터베리대학 역사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이며 한국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에 관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새 번역본 일부를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순교자의 소리’ 본부에서 소개한다. 그는 “조만식, 안창호 그분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자신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그 한국이 아니라 하고 한국 기독교에 자기개조 운동이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라 주장한다.

웰스 박사는 “오늘날 남한의 개신교자가, 긍정적이고 개인 및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세웠던 대단한 한국인들의 신념, 그들의 삶 및 태도로부터 멀어졌다”고 지적하고, “일부 한국인들이 근래 들어 안창호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데, 그는 진정으로 뛰어났던 인물”이라며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가지게 된 새 신앙의 교리와 영적 본질을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웰스 박사는 그들이 왜 조선이 이웃 나라의 속국이 될 만큼 약해졌는지 영적으로 깊이 이해했고, 조선에 영적 회복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은 각 개인의 회복, 혹은 개조에서 시작된다는 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들

련했다. ▶그로 인해 그들이 불가피하게 주류가 쓰는 전략과 다른 전략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익, 좌익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저항’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는 오직 물질에 관한 용어로 이해한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저항이 머리에 떠오를 때, 당연히 신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 상황이 허락한다면 무기를 사용하는 행동일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누군가 비폭력 혹은 영적 저항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건 저항도 아니지’라고 생각한다. 웰스 박사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의 경우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그 이유는 비폭력적 전략을 일제에의 협조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이라 했다.

웰스 박사는 “조만식이 취한 전략을 간디의 ‘satyagraha’에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 독자들은 조만식의 전략을 협조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요 한국어 사전에 satyagraha가 무저항 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잘못된 번역인데, 간디가 영어로 이 말을 설명할 때, ‘civil resistance’ 즉, ‘시민의 저항’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저항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 그는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의장까지 합쳐 130석에 불과,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캐스팅보트’를 휴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며 “부정적 입장은 거두지 않았다.

총운혜 기자

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

석을 기록했다. ▶그는 “이 저항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 그는 생각했다”고 했다.

하석수 기자

예장합동, '동성애' 관련 입장 정리 신학부는 자살·결혼·이단 등 정리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현 목사)가 제102회 총회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총대들은 신학부 청원 사안인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더불어 현법개정위원회가 제출한 현법 개정안 가운데 ‘목사의 직무’를 규정한 기준의 조항(정치 제3조 제1~6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신학부의 ▶교회 안 자살자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 ▶한국교회 이단 해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연구 보고 등이 통과됐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교회 안 자살자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

목회자들 중에는 ‘자살한 성도의 장례 예식을 주관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장례예식이 유교의 장례예식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례예식의 경우처럼 고인의 사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예식이라면, 이 고민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장례예식은 고인의 사후진로에 영향을 주는 예식이 아니다. 고인의 사후진로는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이미 결정 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장례예식은 세상에 남은 시신처리와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 것을 돋는 절차로 세워져 있다.

게다가 성경은 자살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다루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장례 예식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전수를 다 누리고 죽든, 문체상을 필요가 없고, 또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고인의 생애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독교적 사생관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확인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통상적인 기독교적 장례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예식을 진행해 주면 된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의 문제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유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었다.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에 쌓여가는데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현장은 지금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교회는 교인 모두를 품는 큰 가정이 되어 해체된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는, 가정과 같은 따뜻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실제로 교회를 가정과 비교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가정과 같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엡 5:22~33). 가정은 작은 교회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결국 교회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 이단 해제에 대한 입장

①본 교단에서 이단 해제 문제(현 이단으로)를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가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현 목사가 안건 가결을 알리며 고퇴를 두드리고 있다.

크리스천포커스 제공

재심을 위한 결의를 한 후에 재심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연구를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이단의 규정이나 해제는 각 교단이 결정하도록 하고, 연합단체는 이단 해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조은식 기자

②재심 과정은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조사하되 반드시 전문신학자에게

③재심 연구 보고를 받은 총회의 결의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

제

한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는

이

단

이

다

라

[창조신학칼럼] 현대 의학은 만능인가?

◆의료 행위의 아이러니
1975년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던 '몽실언니' '강아지똥' 등의 베스트셀러 동화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고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조덕영

선생(1937-2007)의 사인(死因)이 사망 10년 만에 결핵이 아닌 다른 문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법원 판결로 최근 밝혀졌다. 사인은 의료진들이 부인하던 의료 과실이었다.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1946년 귀국한 후 그 이듬해부터 안동시 일직면 조립리에 정착하고 1968년부터 마을의 교회 문간방에서 중지기회를 하며 혼자 살다가 이후 교회 뒤에 오두막을 지어 살았던 권 선생은 1969년 단편동화 '강아지똥'을 발표해 동화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966년 신장 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을 적출하는 등 오랜 투병을 하면서도 어린이와 자연,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던 모든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던 한국의 귀한 아동 문학 작가였다.

의사가 파업하면 사망자가 급격히 준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1967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의사들이 52일간 파업을 하였더니 평소보다 사망률이 35%나 급격히 줄었다. 같은 해 미 캘리포니아 LA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였더니 사망률이 18%나 감소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 의사들이 1개월 동안 파업하였더니 파업 기간 중 사망률은 50%나 감소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경우는 그 20년 전 역시 의사들이 파업했던 때 외에는 없었다. 당시 의사들은 그런 통계가 나온 이유로 고작 "중증 환자를 치료에 전념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들어놓았다. 그럼 파업 이전에는 중증 환자는 대충 방치했다는 말인가?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이면서 사람들의 사망률을 오히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적학한 통계자료임이 분명하다.

◆약이 아닌 멀거리를 소개하는 방송

전문 의사들의 아이러니

최근 대중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아주 다양한 건강·의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대중 매체들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패널로 등장하는 소위 의학 전문가라는 양의사와 한의사 간에 동일한 문제 앞에 전혀 상반된 총들이 찾은가하면 의사와 한의사란 분들이 최신 치료약에 대한 정보나 진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무슨 영양학 강의나 식품 소개나 헬스 트레이너 마냥 운동 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명 소아과 의사인 R. S. 멘델존은 미국 의과대학에서 학부 4년 동안 영양학 강의는 겨우 3시간(3학점이 약15%) 정도요 그것도 필수 과목이 아니라 (의사 면허시험에 없는 과목이라) 의대생들이 영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로 의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의학 제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양학과 식품학을 잘 모르는 의학 패널들은 소개하는 식품과 영양에 대한 언급을 듣다보면 식품과 영양과 환경과 화학을 전공한 신학자인 필자가 보기엔 TV에 출연하기 위해 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전 공부를 해서 나올까 안쓰럽기조 하다.

◆경제적 유익을 따라 발전되어 온 의료 행위

세속 의학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치료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결국 현대 의학은 경제적 유익을 위한 쪽으로만 발달되어 왔다. 좀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건강 진단법과 치유 방법은 고도화되어 왔으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의학이 너무 전문 영역이라 대중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피동적으로 현대 의학에 의지할 뿐이다.

과거 다양하게 요긴한 치료제로 쓰이던 많은 약제들이 이제는 단순히 제품 단자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떼어져 제약 회사들이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뛰어난 값싼 약들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

라 특별히 가난한 국가들의 고질병(에이즈, 말라리아 등) 치료에 있어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황생제인 페니실린이나 페니실린 내성균에 유용한 페지실린, 암환자 치료제 치료에 쓰이는 박트립(주사), 결핵치료 2차 약인 사이클로세린, 주정맥 치료제인 프로케인아마이드, 과거에 많이 쓰이던 맥소룡이나 네오마이신(수술전 장내부 살균) 등이 국내에 공급이 잘 되는 약들이다.

공급이 막힌 이유는 단순하다. 경제적 재산성 때문이다. 해마다 수십 만 명의 환자들이 이들 생산, 수입이 안 되는 특수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운다. 의사들도 국내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나 구하지 못하는 요긴한 약들이 1천 종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약들이 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값이 싸 생산의 채산성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한 때 약이 없어 병원약국에서 직접 만드는 원내제제가 2천여 종에 달하던 적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의료 현실이다.

◆경제적 탐욕은 과잉 진료를 부른다

경제적 유익을 위한 의사의 욕심은 과잉 진료로 이어질 유혹을 뿐만 아니라 만든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권유할 수 있듯이 의사도 고의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거나 환자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이다. 여기에도 경제적 유익을 위해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의 과잉 진료나 철저하게 환원론적 기계론적 사고에 사로잡힌 의사의 과잉 의욕이 폐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저선량(低線量)' 컴퓨터 단층 활영(LDCT) 검사를 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양성률(암이 아닌 데도 암같이 보이는 비율)에 대한 한 보고의 경우 LDCT 검사를 거쳐 폐암이 의심돼 흉강 진단법과 치유 방법은 고도화되어 왔으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의학이 너무 전문 영역이라 대중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피동적으로 현대 의학에 의지할 뿐이다.

과거 다양하게 요긴한 치료제로 쓰이던 많은 약제들이 이제는 단순히 제품 단자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떼어져 제약 회사들이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뛰어난 값싼 약들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

핀란드 정부는 40대 초반의 관리자 공무원 1200명을 정기검진과 함께 영양 상태, 운동, 금연, 금주 등 건강생활을 철저히 지키게 한 그룹(A)과 그렇지 않은 그룹(B)으로 나눠 15년간 비교, 관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 혈관 질환, 고혈압, 암, 각종 사망률 등의 모든 항목에서 B그룹이 A그룹보다 좋게 나왔다. 심지어는 와병 비판 자살률까지도 높았다. 이것이 '핀란드 신드롬(증후군)'이란 의학용어이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철저한 검진에 따라 나타난 건강 이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각종 투약이나 시술에서 오는 부작용이 치료 효과보다 더 커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경제적 고통 없이 치유 받고 자유롭게 일할 원을 원하신다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이셨다. 그는 예루살렘에 아닌 갈릴리 니사렛의 서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을 영육 간에 치유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때로는 귀신들리고 문둥병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지닌 서민들이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되물은 예수 제자도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제자들이 지극히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경제적 고통 없이 치유 받기를 원하신다. 바로 교회가 그 같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감질의 교회가 되어버렸던가.

성경적 전인 건강론은 일반 계시와 은총으로서의 현대 의학의 공헌을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반성할 부분을 찾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 핵심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 없이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 받을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치유법이 있는가? 그런 국가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거듭난 성경적 창조 신앙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바른 마음이 새기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복음을 잘 지키고 전 한다.

너희가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요6:53-56)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주시입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쁨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용서해주십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자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유연함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성난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깥의 오염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지키며 배 바깥의 사람들을 견제 을릴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형제와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지옥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가 천국입니다.

가을이 오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새싹이 돋습니다. 꽃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과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신호로 물이 아프고 병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 주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에너지를 얻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일기지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웬만한 입고 돌아다녀도 흉보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부끄러운 모습도 수용하고,

어떤 허물이나 잘못도 용서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성실함이나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끊겨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권준 목사의 아침편지] 참 평화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지난주 삼 일간 한국에서 집회로 섭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하루전인 한 개씩 쏴대고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매일 외신은 떠들어 대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거의 관심조차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불건을 사 재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려던 것을 미루는 사람도 없고 습니다.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고 외국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아주 불가사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감에 가깝게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는 사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기에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오늘을 즐기려는 것일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기임에도 그 길을 모르고 있는 이 백성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주는 형제교회의 4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형제와 제가 해마다 다짐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복음을 잘 지키고 전

하자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유연함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성난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깥의 오염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지키며 배 바깥의 사람들을 견제 을릴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형제와 제가

기독일보 제 896호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기

[출애굽기 특강] 이선규 목사 “길이 막힐 때” (출14:1-16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총
체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말
을 합니다. 자
연 생태계를
보십시오. 우
리가 살고 있
는 도시의 공
기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
닙니다.

비가 올 때
는 산성비가
나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도덕적
인 타락입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풍요
로워 지나가며 먹자만 놀자 판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불량배 써를 수 백
개가 되고 중 고등학교는 뿐 아니라 초
등학생들 까지 폭력 행사로 골머리를 앓
고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그러 합니다. 교
회 신자의 수가 감소하는 형편이라고 합
니다. 감소하는 이유가 교회와 그리스도
인들이 사회의 신뢰를 상실 되어가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길이라는 말이 있지요.

위기의 상황에도 길은 있습니다. 바다
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심
히 곤경에 처한 것을 보여줍니다. 비하하
듯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이
스라엘은 길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나아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
퇴 야 난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는 가나
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은 젓과 끌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



대림다문화센터 대표대림
중국교포교회 담임 이선규 목사

었습니다.

젓과 끌이 흐르는 말은 낙관하고 풍
성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
듯이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생기는
법입니다.

출애굽 하는 과정에는 환란과 펑박이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지 않
으려고 하다가 장자까지 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펑박과 방해 공작이
있었듯이 우리가 현국 가나안을 향하는
우리의 앞길에도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
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
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
니다.

그대도 다시 진 퇴 양난의 상황에 이
르게 되었습니다.

2절 이곳의 지형을 살펴보면 좌우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
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순례 길에도 이와 같
이 원치 않는 장애물이 우리의 길을 가로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
혼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
도 하고 부모님의 장례식이 문제가 되기
도 하고 또는 우리의 가정 문제로 또는
질병이나 사업 문제 장애가 될 수도 있습
니다.

그러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죽복과 보상을 받을 때 펑박을 겪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10:30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 받되 펑
박을 겪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 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도 안에 바르게 살고자 하
는 자는 펑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딤후
16:17)

3:12),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
고자 하는 자에게는 펑박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안에 광명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
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펑박 합니다.

갈 4: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펑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구원받
은 후에 모든 것이 변한 것으로 생각하
지만 육신을 정욕을 쳓는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탄식이 나오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
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으로는 우리를 추격하여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만 홍해로 인
도하신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곧 마
음이 놓이게 됩니다.

홍해는 육신을 장례 치르는 세례를 말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은 성도들
은 곧 바로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는 의
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3:27)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은 이 후에
육체를 쳐서 복종 시키는 (롬8:13)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는 대적들에 둘러싸이
고 죄기어 돌파구를 찾지 못해 방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기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 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스러운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
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
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
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
습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지 그에게 돌아켜 세상을 바라 볼 때 두
려움이 생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 믿으라. 이것이 두려움의
해결책입니다

인생 삶에서 제일 큰 적은 이 두려움이
요 곧내 용기를 잃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
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듯이 홍해
를 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
다. 히브리11:29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
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
것을 시험 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본
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만나
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
니고 오히려 애굽 군사를 자멸 시켜 주
셨습니다.

바일스본 애굽 군대가 볼 때는 독안에
든 쥐와 같이 장소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스라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
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도 방
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둘째 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13절’ 길이 막혔을 때 멈춰 서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
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호
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써우시리니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
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을 흉해
에서 매장 시키시려고 출애굽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이끌어 내어 왜
죽게 하느냐고 생각하고 말한 것은 길이
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
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출애굽 시
키신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믿음으
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
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원망 한다고
문제가 해결 됩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겸게 하거나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라 말씀은 조용히 서 있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
씀을 기억하고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지나 온 것 누구의 은혜 입니
까?

누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으며
누가 애굽에 강한 팔로 이적을 행하 였
나. 히브리11:29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
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
것을 시험 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본
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만나
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
니고 오히려 애굽 군사를 자멸 시켜 주
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와 시련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광을 나 타 내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신뢰 하게 될 때 가능하여 지는
것입니다.

셋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
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
다면 홍해가 앞에 있다고 해서 염려 하거
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라도 길을 만들
어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믿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16-17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났다고 말하며 그
래서 길이 없다고 말 할 바로 그때가 하
나님이 시작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
능성은 인간이 자기 노력을 멈출 때 시작
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기
도 하지만 또한 기도 한다는 의미가 있
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생각 밖에
기적이 따르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
다.

또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야 합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
러분들이 신령한 눈을 떠서 우리를 지키시
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의 형편은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흉
해를 갈라 구원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 합
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 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답답한 일
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믿고 영
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노라
고 하는 승리의 선물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 하여내신 이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
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
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시13:6-15)

사오니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옵소서. 친구가 저를 위로하지 못할 때
날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제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에서
부르시고 위로하옵소서. 맘속에 깊은 슬
픔들을 말끔히 지우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생
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를 믿어 사
랑의 힘을 굳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
랑에 목숨을 바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
다. 성령의 선물을 갈망합니다.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
령님께서 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희
개하여 새 생명을 받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송실태, 송의여대 교
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
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아침을 여는 기도] 이 삶에 나아와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
입니다. 사랑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
길이며 생명의 샘입니다. 이 삶에 나아
와 광활 속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거
룩하신 이름이 해 같이 빛나시옵소서. 예
수님을 믿사오니 성령님이 저에게 오시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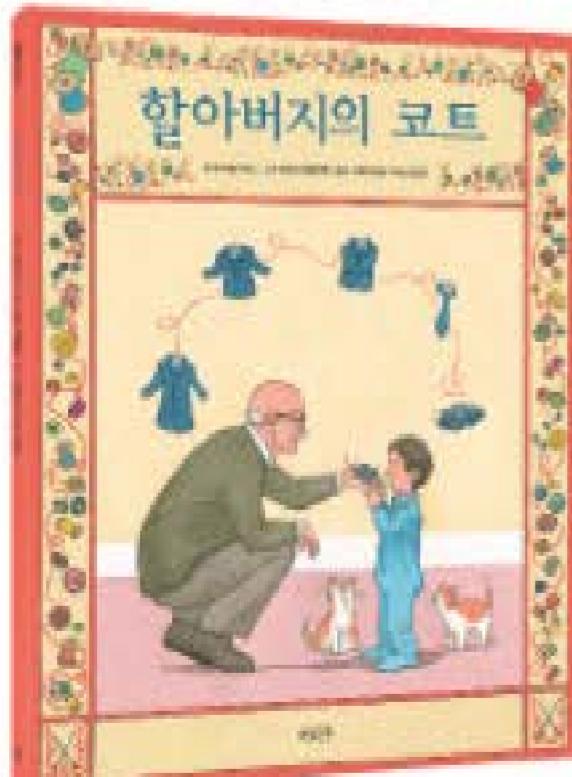
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
음은 구원의 뉴스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
이 복음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 듯한 말로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내신 증거입니다.

혜아립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

면서 함께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점 '2014 최고의 어린이 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잘 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저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해,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려,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트 이호재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0-704-705